

Issue Comment

2020. 11. 3

미코 059090

'미코세라믹스' 유상증자 코멘트

스몰캡

Analyst 이상현

02. 6454-4877

sang-hyun.lee@meritz.co.kr

종속회사 '미코세라믹스' 21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

- 제3자배정 대상자는 '삼성전자'로 주요 제품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및 전략적 제휴 강화 목적
- 조달 자금 사용 목적: 시설자금 100억원, 운영자금 117억원
- 신규 발행 주식수는 74.7만주로 증자 전 발행 주식수의 약 18.7%. 신주 발행가액은 29,000원
- 증자 후 '미코'의 '미코세라믹스' 지분율은 100%에서 84.3%로 감소(삼성전자 15.7%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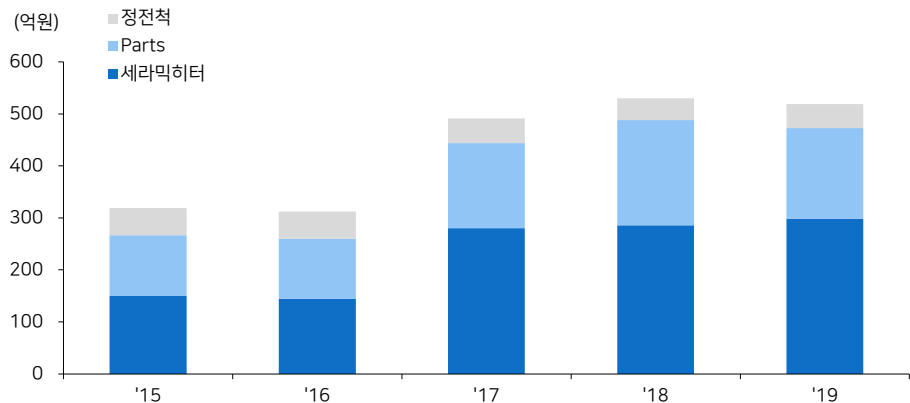
국내 No.1 반도체용 세라믹 부품 전문기업 '미코 세라믹스'

- 주요 제품은 세라믹히터, 정전척(ESC: Electro Static Chuck), 기타 세라믹 소모품을 생산
- 세라믹히터는 반도체 전공정용 장비 'PECVD'에 탑재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박막 증착을 위하여 Wafer에 균일하게 열을 전달하는 부품
- 정전척은 반도체 전공정용 장비 'Etcher'에 탑재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Chamber에서 Wafer를 정전기를 통해 고정해주는 고기능성 부품
- 세라믹히터와 정전척의 시장 규모는 각각 5천억원, 8천억원 수준
- 일본업체의 점유율이 95%로 고객사의 국산화 요구가 크다고 판단됨
- 매출 구성('19년): 세라믹히터 57.4%, 정전척 8.9%, Parts 33.7%

소부장+그린뉴딜 수혜

- 2021E 매출액 3,040억원(17.5% YoY)/영업이익 486억원(10.4% YoY, OPM 16.0%)을 예상
- '미코세라믹스'의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와 '미코파워'의 SOFC연료전지 사업 본격화로 실적 성장을 전망
- '20년 10월 28일 '미코파워' 물적분할 공시로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마련
- '미코파워' SOFC Capa: 1MW → 10MW 증설 계획
- 반도체 부품 국산화와 그린 뉴딜 정책 수혜로 매수 접근 유효

그림1 미코세라믹스 실적 추이



자료: 미코세라믹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미코세라믹스 유상증자 공시(2020. 11. 2)

구분	내용
유상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증자의 목적	주요 제품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및 전략적 제휴 강화
제3자 배정 대상	(주)삼성전자
납입기일	2020.11.1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01.01
조달금액	21,666,654,000원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4,000,000주
신주 발행주식수	747,126주
신주 발행가액	2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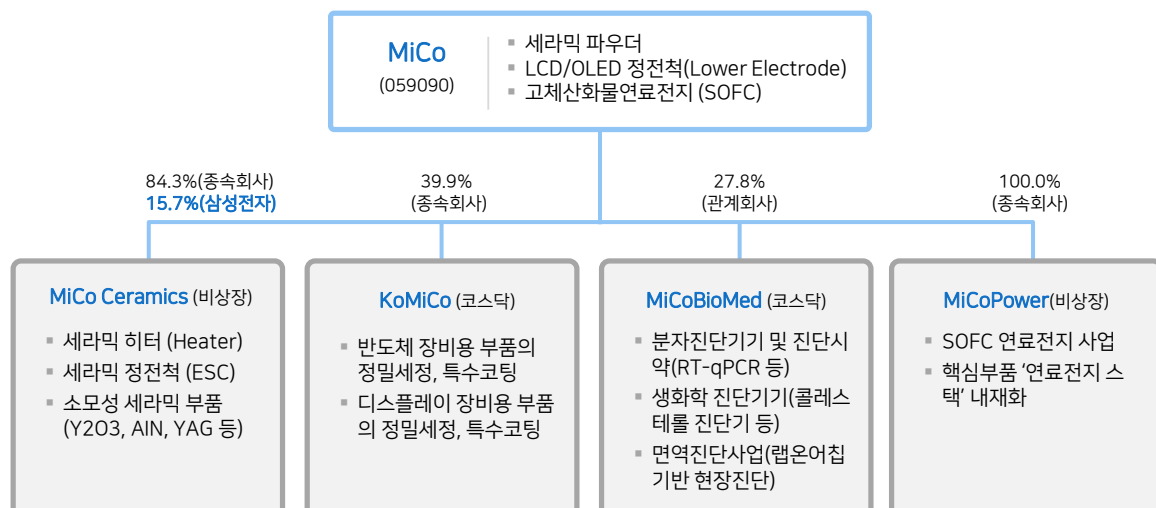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미코파워 물적분할 공시(2020. 10. 28)

구분	내용
분할방식	물적분할
신설회사 사업부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사업부문
분할기일	2021.01.01
분할보고총회(준속) 창립총회일(신설)	2020.01.04
분할등기 예정일	2020.01.05
분할설립회사 '미코파워' 재무내용	
부채총계 (억원)	65.2
자본총계 (억원)	96.5
자본금 (억원)	10.0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코세라믹스' 유상증자 및 '미코파워' 물적 분할 후 지분 구조



자료: 미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